



지부교섭 속보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상병휴직 기간 보장!
기본급 146,746원 인상!

제12호 / '18.8.10(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개인상병휴직은 의견접근 임금, 노사공동위는 지회별 논의 지부교섭은 지회별 의견접근 때까지 잠시 중단

지부교섭 중단 후 지회별 논의로 전환

9일(목) 한국JCC에서 13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노사 모두 의견접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공동위 참여 문제에 대해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해, 최종적인 의견접근에는 이르지 못했다. 개인 상병휴직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봤고, 임금과 노사공동위는 지회별 논의를 통해 의견접근을 이루면 추후 지부교섭에서 최종 합의하는 것으로 했다. 지회별 의견접근이 이뤄질때까지 지부교섭은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노사공동위 안되면 지부투쟁 각오해라

이날 끝까지 쟁점이 됐던 건 노사공동위 참여를 거부한 사업장 때문이었다. 자동차 업종이 아니라 노사공동위 참여가 부담스럽다며 참여 거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지부가 사측이 우려하는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고,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김정태 지부장은 “올해 교섭에서 노사공동위 합의 안하면 도장 못찍는다. 이걸 지부장이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지회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고 지부가 붙을 것이다. 제대로 붙을 각오하셔야 한다.”고 못박았다.

노사공동위에 참여하기로 한 사업장 역시도 지회의 단협 및 임금 요구안이 17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부가 투쟁을 결단할 것을 밝혔다.

1. 2018년 임금인상 : 지회별 논의 후 교섭 속개
2.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 지회별 논의 후 교섭 속개
3. 상병휴직기간 인정
 - ① 개인상병휴직(진단서 첨부)에 따른 병가 휴직의 경우, 치료기간까지 상병휴직을 인정한다. 단, 사업장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직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복직 후 정상근로의 여부, 추가되는 치료 기간의 정도, 대체인력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기간의 연장 여부를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개인상병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사업장 단체협약에 따른다.

8월 17일까지 지회별로 의견접근하라

노 : 오늘 우리는 웬만하면 타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왔다. 오늘 의견접근했으면 한다. 제시안 준비됐나?

사 :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부장 말씀대로 잘 접근해서 마무리되길 바란다. 제시안 준비했다. 사업장들도 다 음 주면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도 오늘 어떻게든 잠정 합의하길 바란다.

노 : 노사공동위에서 단서조항은 삭제하자. 이건 사실상 참여안하겠다는 거다. 논의 과정에서 회사가 소외되거나 의견반영이 안되면 그부분은 논의해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걸 안들어오겠단 소리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 정회하자.

〈정화〉

노 : 의견조율 하셨나? 코스모링크는 계속 단서조항 살리자는 건가? 코스모링크 때문에 지부교섭이 난항이다. 본사랑 지부 차원에서 만나보자. 일정 잡아서 연락달라. 금속노조랑 대화 못할 거 같으면 아예 노조 파괴를 시도하셔라. 괜히 여러 사업장 피해주지 말라. 같은 갑을 자본인데 갑을오토텍은 중앙교섭 들어온다. 왜 코스모링크는 필요할 때는 갑을자본 핑계대고, 불리하면 갑을하고 상관없다고 하나? 자꾸 코스모링크가 자동차 업종 아니라고 핑계대는데, 여기 자동차 업종 3개밖에 안된다. 이걸 코스모링크 사용자가 노조 인정 안하는 거라고 본다.

상병휴직 내용 중 요구한 문구 삭제는 가능한가?

사 : 1회에 한하여 제한하지 않으면 노조가 요구한 원안과 차이가 없다. 휴직기간을 계속 연장하면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 회사 운영상 복직이 언제일지 모르는 사람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

노 : 이해가 안된다. 임금을 사업장 단협에 맞게 하는데, 단협 이후 기간을 무급으로 그렇게 무제한 휴직하는 사람이 있겠나? 그런 사례가 나오면 얘기해라. 산재 나가도 다 운영하지 않나? 똑같이 고민하면 된다. '1회에 한하여' 삭제하면 지부교섭 마무리할 수 있다. 노사공동위는 별도 안을 고민하고 있다. 코스모링크는 각오하셔야 한다.

사 : 잠시 정회하자.

〈정화〉

노 : 의견접근이라고 하긴 그렇고, 임금과 노사공동위에 대해서 지회별 논의 후 교섭을 속개하겠다. 지부교섭은 중단하고 지회별 교섭으로 전환하겠다. 노사공동위 합의 안하면 도장 못찍는다. 노사공동위는 지부가 양보할 수 있는게 아니다. 지회에서는 문제가 될거다. 지회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고, 지부가 붙겠다. 그걸 각오하셔야 한다. 임금도 동결은 안된다. 지회 타결이 8월 17일 넘기면 지부에서 결단할 수밖에 없다. 17일까지 지회별로 의견접근할 수 있도록 지회에서 요구한 내용들 최대한 수용해주시길 바란다. 지회별로 의견접근 끝날 때까지 지부교섭은 잠시 중단하겠다. 중간에 지회별로 의견접근되면 지회별로 조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